

아메리카노의 진한 향 케이크의 달콤함에 '흠뻑'



'알라와' 대표 강소영씨

익산 왕궁골 보석박물관 입구에 위치
강소영 대표, "호주 유학 이후 카페 오픈
언제든 다시 찾고 싶은 곳 되도록 노력"
에스프레소·카푸치노·라테 등 즐기며
가벼운 샌드위치·샐러드 등 맛볼 수 있어

연인과 함께 시작하는 짧은 여름밤 잊지
못 할 추억 여행을 떠나보자.

도심을 벗어나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이
소담스럽게 내려앉은 왕궁골 보석박물관
입구에 위치한 디저트 카페 '알라와
(Allawah, 대표 강소영)'.

알라와(Allawah)는 호주 원주민어로 '그
곳에 머물다'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.

한 젊은 여성이 호주 유학을 다녀와 바리스타
의 길을 걸으며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은은한 커피
향을 흠뻑하고 있는 곳이다.

그곳은 화려한 불빛으로 나그네 먼 길 세우는
현란함은 없지만 동네 어귀에서나 흔하게 볼 수
있는 친근한 분위기로 더욱 호감이 가는 곳이다.

저녁 식사를 마치고 마실 나오는 길에 우연히
만난 연인과 찻집에 들러 시간가는 줄 모르고 수
다 떨어지게 떠나는 그런 곳이다.

그곳 작은 앰프에서 흘러나오는 고즈넉한 음악
소리는 프로포즈를 염두에 둔 연인의 마음을 사
로잡기에도 충분하다.

아련한 추억이 깃든 간소세와 상층은 어느덧
한 자리에 마음을 모으고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
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.

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면 에스프레소, 아메리카
노, 카푸치노, 라테를 즐기며 가벼운 샌드위치와
샐러드, 그리고 불고기 덮밥과 건강한 요거트 등
을 맛볼 수 있다.

4년간 호주유학을 다녀온 카페 대표 강소영씨
는 "호주 시드니에 있는 현지카페에서 바리스타
로 일을 했는데 성향이 다른 손님들 입맛에 맞는
커피를 내리는 일이 무엇보다 매력적이었고 그들
과 대화하며 아침을 여는 분위기에 흠뻑 매료됐
다"며 "한국에서 카페를 오픈한 만큼 알라와 만
의 문화를 만들어 언제든 다시 찾고 싶은 카페가
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

한편, 알라와는 익산(부근으로 시내권에서 오
거나 왕궁면사무소에서 용화산 가는 길로 들어서
면 보석박물관 입구에 있다.

인근에는 용남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고즈넉
한 환경과 선사시대 공룡과 함께 여름 야경을
즐길 수 있는 보석조형물이 있어 추억의 사진을
담기에 모자람이 없다.

*주소: 전북 익산시 왕궁면 호반로 23-1
전화: 063-832-4938 /익산=장양원 기자



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

전주매일이
앞장서겠습니다

자료: 질병관리본부

전주매일-(유)늘숨건설 공동 캠페인

건강한 시민이
할 수 있는
감염병 예방법
두 가지



손씻기



마스크착용

일반시민이라면?

1.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
2.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
3.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, 입 만지지 않기
4.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
5.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
6.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

증상이 있으시다면?

1. 등교,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
2.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~4일 경과 관찰
3.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,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
4.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
5.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